

核폭탄 앞에 국보법 철폐 안된다

—— 안 경 근 회원 (前 강남경찰서장)



이다.

지난 2월 20일 수도 서울에서는 이념적 성격이 정 반대인 두가지 대규모의 군중집회가 열려 영하 20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토하면서 각각의 주장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부와 입법기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도와 같은 요구를 쏟아냈다.

그 한쪽은 대한민국건국회,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우회, 북핵저지시민단체 등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켜 나가기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이 존치유지되고 사립학교법, 과거청산법 등의 제정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전 보수인사들의 외침이고, 다른 한쪽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개혁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행진이라는 거창한 행사명을 붙여 국가보안법완전폐지, 사립학교민주적 개성, 올바른 과거청산법제정 촉구를 주장하는 일부세력들의 외침이었다고 보여진다.

양측의 주장은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바탕하여 정부의 정당한 허가 아래 진행된 집회이기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이유는 없

으나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주장에 대하여는 누구를 위한 철폐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1948년도에 국회의원입법으로 제정 시행된 후 6차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야욕을 방지 예방 차단하여 행어나 발발할지도 모를 전쟁을 방지함으로써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다만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었거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거나 법 집행의 남용이 있었으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고 그 억울함이 신원(伸冤)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작은 과오와 흠을 이유로 하여 국민 모두의 생존권과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보루적인 법을 폐지하지는 논리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소수세력의 감정적 외침이거나 좌경 친북세력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국민 절대 다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이 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한 나라가 국가로서의 요건과 근본 조직을 갖추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공국가나 세계열강과 동등한 위치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국

들은 물론 현재의 우방인 강대국들의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부당한 위협과 침범과 자국민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북한의 형법을 모른다면 국가 보안법 폐지를 거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법이 민족통일의 장치가 되니 폐지하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에는 세계 문명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도 없는 약법들로 그들의 공산왕조 체제수호를 위하여 거미줄처럼 북한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반혁명범죄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범죄에 대한 유추해석을 인정하고 형벌소급효를 적용하며 범죄 불신고와 방임죄를 친족에게까지도 적용하며 그들이 형법에서 정한 반혁명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면 사형과 전제 산물수라는 중형으로 일관되고 있음은 북한주민의 사상적 통제와 적화통일을 향한 음모와 이중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면 국가보안법은 수구집단의 이익보호를 위한 약법이요 고문과 불법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이고 북한 법체제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보안법이 없음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나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논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법의 폐지는 북한체제수호에 보탬만 되는 이적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장치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란과 북한의 핵보유 문제로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위용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가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고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준다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말장난을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음은 우리 국민 모두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교전상태에 들어가면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그들의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나라임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쉽게 대수롭지 않는 듯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할지 모르나 바로 눈앞에서 지금이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미국의 주연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될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여 정권 안보나 집권 연장의 도구로 악용되는 부정적 요소는 과감하게 시대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생존을 지켜 나가기 위한 자랑스러운 법체제로 보존 발전시켜 나가도록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窓邊> 에세이

황칠나무를 아십니까?

—— 濟隱 金 今 道 회원 (중앙회 부회장)



책에 나섰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9시면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옛날에는 '임업시험장'이라 했는데 지금은 '국립산림과학원'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안에 '홍릉수목원'과 '산림과학관'이 있어, 시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을 위한 산책코스도 마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

임구에 들어서니 "푸른 숲, 그 사랑은 산불애랑입니다"라는 현수막이 먼저 눈에 뜨인다. 우선 신선한 맛을 준다. 얼마 전만 해도 "불조심 강조기간"이니 "너도나도 산불조심"과 같은 딱딱한 문구의 현수막이 나붙었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감성에 호소하는 문구인가? 오늘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행정사무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덩달아 기분이 좋다.

안내 표지에 따라 '산림과학관'에 이르니 과학관 안에는 산림의 기능과 가치, 임업, 임산업에 대한 지식,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전시실에는 '산림과 인간', '산림과 산업', '목재와 생활' 그리고 기획전시실 및 특별전시실이 체계 있게 설치되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꼬불꼬불 만들어 놓은 수목원 체험 및 건강코스를 따라 이동하니 겨울이라 그 많은 숲들은 나뭇가지만 앙상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가지에 매달린 갈색의 떠갈나무 잎이 처량해 보이는구나!

그러나 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소나무 등 사철나무는 겨울도 아랑곳없이 그 푸른 자태를 뽐내고 있어 그야말로 靑也靑靑 그대로이다

소나무 앞에서니 고산 윤선도의 '五友歌' 중에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는

다. 九峯에 뿌리 꿈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는 시조가 떠오른다.

수목원은 주산이 천장산(표고 141m)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라고 하며 1960년대 이후 국내, 외 수목을 수집, 복원하여 현재 이곳에는 총 157과 2,035종 20여만 본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1시간여 동안 자연학습과 숲 체험을 하면서, '활엽수원'에 이르러 '황칠나무'라는 처음 듣는 식물표지판에 발걸음이 멈춰,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남부지방의 해안과 도서지방에 자생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높이가 15m에 달하며, 수피에 상처를 주면 노란색의 수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黃漆'이라 하여 고급도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사귀를 보니 흡사 고무나무 같은 모양이며, 검푸른 잎은 오늘따라 파사로운 햇볕아래 기름기가 번지르르 하게 흐른다.

'황칠나무'를 아십니까? 는 스스로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나무 이름이지만 얼른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벽이나 방에 아무렇게나 짝짝 낙서한 것을 보고 어른들이 "아들들! 왜 황칠을 하느냐?" 그 야단치던 일이 생각나, 도료가 없던 옛날에 이런 재료를 사용했음으로 황칠이란 말이 이 나무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싶다.

황칠이란 경상도 사투리로 "낙서나 아무렇게나 휘갈쳐 쓴 글이나 그림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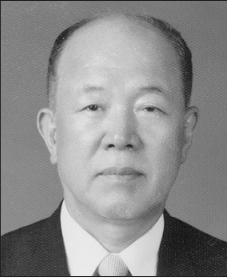
오늘 식물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았으니, 신록의 계절! 5월 어느 날 이곳을 다시 찾아와서 '황칠나무'와 저 수목들이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해본다.

원로경우들을 비롯한 실버분들이 해외여행이나 먼 곳에서 새로움을 찾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수목원이나 공원, 숲, 고수부지, 강변, 호반 그리고 전시관과 때로는 이벤트 행사장 등에 가서, 그 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사물들을 접하게 되면 삶의 새로운 면을 맛 볼 수 있어, 또 다른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심부름 센터 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최 중 락 회원 ((주)에스원 상근교문)



온 국민이 새천년을 맞으면서 희망을 외쳤던 것이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 희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 사회는 빈부의 격차

에서 오는 양극의 폭발로 자기 몫을 찾겠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면서 갖가지 폭력을 수반한 범죄행위는 사회 기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더욱이 근래 버젓이 세무서에 허가를 얻은 서비스업 일부인 심부름 센터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 뒷조사나 개인신상정보 유출, 도청 등 사생활 침해가 주류를 이뤘던 심부름 센터 개입 범죄가 보복금을 노린 청부폭행, 납치,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까지 확산된 것이다.

'심부름 센터 청부범죄'가 부쩍 기승을 부리는 것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업체와 의뢰인의 의식 수준 탓도 있지만 이를 방치 해온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본다.

나는 특정인에게 치안 서비스(불안해소)를 제공하는 경비업체의 임원이요, 퇴직 경찰관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산업분류표상 기타서비스업인 심부름 센터는 누구라도 관할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이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니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등록업소는 200여곳 뿐이고, 무등록 업소가 그 10배도 넘는다. 개업이 손쉽다보니 오랜 불황을 틈타 우후죽순처럼 늘었고,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자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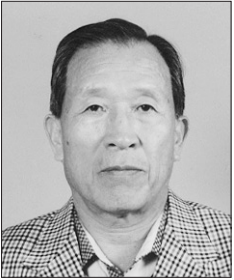
심부름 센터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이 우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수천곳이 난립한 심부름 센터를 마냥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경찰도 심부름 센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속에 나설게 아니라 근본적인 방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개개인의 고충을 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선량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심부름 센터의 순기능만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 컨설팅 등의 설립과 민간정보 수집, 관리, 감독, 직원교육 등에 관한 법과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처럼 사설탐정업을 합법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단식이란 먹는 일을 끊는다는 말이다. 종교적 수행이나 의식 기타 목적적 행을 위하여 음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불교, 유

태교, 기독교, 천주교, 회교, 인도교 등 종교계에서 의식 또는 의례적으로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피랍박 민족이 자기나라의 생존과 독립을 위하여 단식 투쟁하기도 하고 정치적 의사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자기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하면 개인 사생활에서도 가족간의 불화나 갈등이 있을 때와 남녀간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먹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분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 런던대학까지 나온 후 자기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反英,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11회의 단식을 결행하였고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쟁취하는 영광도 맛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해 온 아일랜드 공화군 핵심 멤버이던 보비센드라는 27세의 젊은이는 1981년에 66일간의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뒤를 이어 감옥에 있던 9명도 단식 끝에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래도 영국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일 운동을 한 면암 최익현 선생은 1906년 74세 고령의 나이로 의병을 일으켰다. 일경에 잡힌 뒤 일본 쓰시마에 갇혀 있을 때 "원수의 밥으로 연명할 수 없다"면서 곡기를 끊었다. 그 뒤 4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6일동안 식음을 전폐하다 아편명아리를 먹고 애석하게 숨을 거두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도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아당

정치 지도층이 여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대한 거부, 한일회담 반대, 유신헌법 반대, 군사정권 반대 등으로 자택, 당사, 국회에서 단식을 결행했다.

노사분규시 노조측은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에 붉은 띠나 붉은 조끼를 입고 단식농성 하는 경우도 많았다. 환경단체나 불교계 지역주민이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고산 습지 생태계 파괴) 반대, 경인운하공사(경제성 및 수질오염) 반대, 한탄강 댐 공사(생태계 파괴) 반대, 부안 방사성 폐기처분장 공사(생존권, 위험성) 반대, 사태산 터널공사(국립공원 훼손) 반대, 새만금 간척공사(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반대 등으로 국책사업이 표류하여 국고손실이 이만 저만 큰 것이 아니다.

그 손실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 국민 모두의 손실이다.

기업들은 일 톨 없이 세계 이곳저곳을 뛰면서 외화를 벌어오는 데 인간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정부고속철 천성산 터

널공사 반대 단식 투쟁을 하던 지울스님이 100일만에 재협상 한다는 조건으로 단식을 풀었다. 생의 위험수위까지 갔었으나 단식을 중지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결과는 국가의 국책사업이 개인의 단식 의지에 굴복한 셈이다. 당초 이 국책 사업이 타당성 조사없이 부당한 정략적 정책사업이었다는 말인가? 공사 진행 중에 반대 단식으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어느 쪽이 손실이 크겠는가?

2002년 12월 대선 당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천성산 터널공사 전면 재검토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놓았는데 뒤처리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결국은 발목이 잡힌 것이다. 선거공약이 잘못되었는지 사업을 진행 한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관계 당사자들과 진지한 협의를 어느 한 쪽도 축이 가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국가발전과 국익에 영향이 있는 국책사업이라 한다면 웬만한 희생은 감수하고 수용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묘(妙)한 인연(人緣)

- 미국에 두 남자(男子)가 있었습니다 -

1. 두 남자(男子) 다 미국(美國)의 대통령(大統領)이었습니다.
2. 한 남자는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한 남자는 100년뒤 1960년에 당선되었습니다.
3. 두 남자 다 금요일에 죽었습니다.
4. 두 남자 다 머리에 총알을 맞고 죽었습니다.
5. 두 남자 모두 총 맞을때 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6. 한 남자는 포드 극장 앞에서 죽고, 한 남자는 포드에서 만든 자동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7. 극장에서 죽은 남자의 암살범 "부스"는 극장에서 암살을 하고 창고로 도망가다 잡혔고, 자동차에서 죽은 남자의 암살범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저격한뒤 극장으로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8. 암살범 "부스"는 1839년 생이고, 암살범 "오스왈드"는 1939년 생입니다.
9. 두 남자의 뒤를 이은 부통령 이름이 모두 "존슨"이었습니다.
10. 앤드류 존슨은 1808년 생이고, 린든 존슨은 1908년 생입니다.
11. 두 남자 모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식중 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2. 두 남자의 암살범 모두 재판전에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13. 한 남자는 링컨 대통령이고... 한 남자는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14. 링컨 대통령의 비서 이름은 케네디 였고...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 이름은 링컨 이었습니다.
 15. 링컨과 케네디 모두 이름이 알파벳 7자리 입니다
 16. 후임대통령 앤드류 존슨과 린든 존슨의 알파벳은 13자리로 똑 같습니다.
 17. 암살범인 존 윌크스 부스와 리 하비 오스왈드는 15자리 알파벳으로 일치 합니다
-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절묘하죠.